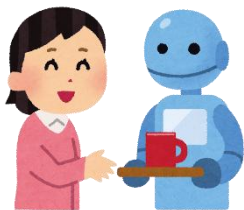


<엑스포(세계박람회)란?>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올해 10월 13일까지 오사카의 유메시마에서 열립니다. 오사카에서의 개최는 1970년 이래, 실로 55년 만입니다. 당시의 주제는 ‘인류의 진보와 조화’이었습니다. 태양의 탐이나 미국관에서 전시된 달의 돌을 기억하는 분도 많지 않을까요?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입니다. 왜 매년 주제가 다른가 하면, 엑스포는 지구 규모의 과제의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국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주제를 내걸기 때문입니다.



엑스포의 역사는 오래되어, 그 기원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현대의 엑스포에 이어지는 형태로 개최된 것이 1851년의 런던 엑스포입니다. 그 후 각국 주요 도시에서 엑스포가 개최되었으나, 현재와 같이 테마를 내걸어 개최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입니다. 일본은 1867년 파리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 배경으로 ‘일본’이 아니라, 도쿠가와 막부, 사쓰마번, 나베시마번 각각이 출전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일본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참가한 것은 1873년의 빈 엑스포가 처음입니다.



많은 도시가 엑스포의 개최지가 되었습니다만, 그 선정 방법은 BIE(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국제박람회기구)의 가맹국에 의한 투표로 정해집니다.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 후보지가 개최지가 됩니다. 다음 2030년의 엑스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의 개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관에서는, 거대 미래도시 프로젝트 NEOM과 폭이 불과 200미터인 도시가 직선상으로 170km나 이어지는 ‘THE LINE’을 입체 모형과 가상현실(VR) 기술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에서 엑스포 회장까지는 비행기도 편하지만, 색다르게 미야자키 카페리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밤에 미야자키항을 출발해, 다음 날 아침 고베항에 도착합니다. 고베항에서 엑스포 회장까지는 자가용 혹은 전철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 하루 동안 느긋하게 엑스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야자키 카페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야자키 카페리 <https://www.miyazakicarferry.com/>

이번 여름, 최첨단 기술을 체험하러 가 보세요.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 miyainfo@mif.or.jp

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